

나는 김대중·뛰는 이정선... 군소 후보들 힘겨운 추격전

전남광주 통합 교육감

통합특별선거 교육감 선거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타 입지자들을 큰 폭으로 앞선 가운데 현역 프리미엄을 얻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시·도사회단체가 추대하는 후보들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양 시도교육감 위주의 판세가 주를 이뤘지만, 전교조 성향의 광주 사회단체 단일후보가 한 축을 세우고 여기에 비슷한 가치관을 지닌 전남 지역 사회단체 단일후보가 손을 맞잡으면 삼각 구도 선거도 예상된다.

광주일보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통합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21%의 후보 적합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11.7%의 지지를 받았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차이는 9.3%포인트로 오차범위(2.5%포인트) 밖이었다.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6.2%의 지지를 얻어 현직 교육감을 제외한 후보군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지역에서는 출마 후보군이 압축돼 선거 구도의 변화가 예고된다.

이정선 교육감에 맞서 3명의 후보가 대립하는 양상에서 1대1 구도로 구도가 좁혀졌다. 정성홍 전교조 전 광주지부장이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후보시민공천위원회'의 공천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김용태·오경미 등 출마예정자는 정 후보 확정으로 선거 구도에서 물러났다.

이정선·정성홍 출마 예정자는 '전남공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오는 21일 전남 순천에서 '전남이 키우고 광주가 인정하는 이정선' 출판기념회를 열고 '고향 민심'을 두드린다. 그는 순천시 서면 학구리에서 태어나 순천서산초, 순천매산중, 1977년 순천매산고를 졸업했다. 이를 발표한



강숙영 고두갑 김대중 김해룡 이정선 장관호 정성홍 최대욱 (가나다순)

광주일보 등 여론조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선두 질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추격...사회단체 단일후보 변수로

삼아 출판기념회를 광주에 이어 순천에서 한 번 더 개최한다.

정성홍 광주시민공천후보도 광주 표심 다지기는 물론 전남지역 선거 전략 짜기를 본격화했다. 그는 학생 행복·안전 교육, 교육 공동체 회복, 교육격차 해소와 공정한 기회 보장, 미래교육 혁신 등을 내세워 전남 유권자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전남지역 출마예정자들은 통합 추진과정을 지켜 보면서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이 지난 7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재선 도전 깃발을 올렸고, 고두갑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장이 12일 광주에서 통합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해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으로 예비후보로 일찌감치 등록해 선거 운동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현직 프리미엄에 통합에 따른 선거구 확장 이점을 누리는 김대중 교육감에 맞서 교육행정과 현장경험으로 다져진 중량감 있는 입지자들이

포진해 있어 통합 변수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갈수록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교육 대전환'을 기치로 펼친 교육의 본질 회복과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 시대에 맞게 기초를 쌓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물론 전남·광주 교육 역시 지금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한때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으로 상징되던 역량 있는 지역 교육이 여러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다시 교육 부흥의 시대를 열기 위해 고민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과 광주가 통합 논의와 함께 교육까지 연계된다면 대한민국 K-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책의 문제의식 역시 지역에서 출발해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교육'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전남지역 공청회를 마무리하는 대로 광주에서도 공청회를 열어 교육통합의 필요성과 혜택, 우려점과 대응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보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 장학관 출신인 강숙영 교육학박사도 '교육의 답은 사랑이다' 복권서트 열고 출마를 공식화하며 전남 최초 여성교육감을 향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 박사는 평교사에서 교장, 전남도교육청 장학사·장학관까지 현장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의 모든 해답은 아이를 중심에 두는 데서 나온다"라며 사랑·현장·책임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교과 재직 시절 음악실 신축을 위해 군수를 직접 설득해 예산을 끌어낸 사례, 신생 고교 운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경험을 소개하며 실천 중심 리더십을 강조했다.

김해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 본격

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김 예비후보는 37년간 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주·전남 교육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디지털 AI 교육 전문가로서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미래 전남교육 새 시대 열겠다"라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장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라며 "현장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주체가 되는 전남교육,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발전의 교육정책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에서 출마를 공식화한 고두갑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장은 "20년 경제학자로서 치밀한 진단과 교육행정 전문가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와 전남의 교육 대전환을 이룩하겠다"라며 선거전에 합류했다.

고 원장은 광주·전남 교육 대전환 시대를 위해 기초 문해력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자립적 지식 육성, 학교 거점화,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 등 5대 비전을 제시했다.

고 원장은 20년간 후학을 양성해 왔으며 기획재정부 전남지역 교육센터장, 전남기분사회 상임대표 등으로 활동해왔다.

이 외에도 학생 인권과 교원들의 교권이 조화를 이뤄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상호 존중과 존경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공부하는 에듀토피아(EduTopia) 건설'하겠다는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교육감 선거 관전 포인트

6·3 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구 광역화'가 판세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교육감 도전자들은 시·도별 맞춤형 전략을 폐기하고 통합형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역이 넓어져 선거운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양 지역 교육 현장의 환경이 현격히 다른 만큼 새로운 선거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은 난제에 가깝다.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은 통합에 따른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 교육자치권 확보, 교원 인사 현안 등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한 출마예정자측 관계자는 "선거전략이나 비용 등을 선거구 광역화에 맞춰 새로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대한 지역을 오가며 유권자들을 만나는 것도 난제 중의 난제"라고 설명했다.

행정통합이라는 변수에 따라 후보군별로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인지도 등에서 현 교육감들에 비해 불리한 수밖에 없는 출마예정자들은 선거구 광역화

교육 환경 다른 광주·전남 '선거구 광역화'가 판세 좌우할 변수 유권자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도 끌어올리기도 큰 영향

에 따른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마찬가지로 출마가 확실시 되는 현 사·도 교육감은 서로 상대 지역에서 인지도가 떨어진다. 각 캠프에서는 '취약지역'으로 떠오른 광주와 전남을 효율적으로 공략하는지 여부에 선거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주와 전남 지역간 단일화 연대도 주목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출마자가 이정선 시교육감과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으로 사실상 압축됐다.

광주지역 사회노동단체들이 중심이 돼 활동 중인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후보시민공천위원회'가 공천 단일후보로 정성홍 전 전교조지역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을 선출했다. 그동안 후보 경선에서 각축을 벌여왔던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은 탈락했다. 광주에서 추가 출마예정자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성홍 시민공천위원회 후보를 확정된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후보시민공천위원회'가 전남지역 사회노동단체들이 추진하는 전남도민주노동공천위원회와 후보단일화 작업에 나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양 지역의 후보단일화 추진 사회단체들이 통합 단일화에 성공해 후보를 1명으로 압축하면 현직 교육감 2명의 경쟁 구도로 가고 있는 현 상황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전남에서는 김해룡·문승태·장관호 입지자를 대상으로 공천위원회가 경선한 후 단일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경선 후보 중 한 명이었던 문 전 순천대 부총장은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번 지선의 가장 큰 변수로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꼽는 이들도 적잖다.

교육감 후보 측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온통 통합시장에 쏠리면서 모든 이슈를 삼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무관심 속에서 치러져온 교육감 선거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3차 유권자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거 관심도 및 투표 행태 부문에서 교육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광역단체장선거'가 74.1%로 가장 높았고, '기초단체장선거' (71.3%), '지방의원선거' (53.1%), '교육감선거' (43.1%)의 순이었다. '교육감선거'를 제외

한 모든 선거에서 지난 7회 지방선거 때보다 관심도가 상승했으나 교육감 선거 관심도는 또다시 주저앉았다. 교육감 선거는 제7회 지선에서 43.6%였으나 8회에서는 43.1%로 더 낮아졌다.

통합 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 상승할지가 후보자들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이번 통합 교육감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상승하기는 어렵다"면서 "교육감 선거 특성상 교육수혜자들이 유권자에서 배제돼 있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오 대표는 이어 "교육감 선거가 광역화만큼 결국에는 '자원'의 싸움이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조직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현직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조직력과 인지도가 약한 후보들은 고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